

석화업계, 日분쟁 한숨 났더니... 에틸렌 과잉공급 '복병'

韓日갈등 양상 업계영향 '미미'
에쓰오일·GS칼텍스·LG화학 등
전세계적 에틸렌 생산설비 도입
2023년 이후 가격 불안정 전망



LG화학 여수공장.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키로 공포한 가운데,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산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유업계와 석유화학 업계는 에틸렌 공급과잉과 미중 무역갈등, 정제마진 하락 등으로 또 다시 긴장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일 갈등 양상이 국내 석유화학 업계와 정유업계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최근 수입 제한 가능성이 컸던 대표적인 화학제품으로 MX(혼합자일렌)과 톨루엔 시클로hex산 등이 거론됐지만 이들 품목의 경우 물량은 크지 않다. 국내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업계 주장이다.

MX의 경우 자일렌은 페트(PET)병과 합성섬유(폴리에스터 등)를 만드는 파라자일렌(PX)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국내 정유·석유화학업계가 PX 설비를

크게 늘리면서 수입이 이뤄졌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지라도 석유화학업계의 쌀로 통하는 '에틸렌' 생산에 석유화학업체는 물론 정유업계에도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업체들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에틸렌 생산설비 도입 열풍은 수요 지속 성장이라는 장밋빛 수요예측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려는 각

기업의 전략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기존 석유화학업체들은 물론 다운스트림 제품으로의 사업 확대를 꾀하고 있는 정유업계까지 경쟁적으로 에틸렌 설비 도입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선 정유업계에서 에쓰오일 150만톤(t), GS칼텍스 70만톤의 생산설비를 도입 중이고, 석유화학업체도 LG화학 110만톤, 현대케미칼 75만톤, 한화토탈 31만톤, 롯데케미칼 29만톤 등 추가 증설에 나섰다.

그러나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틸렌 생산설비 도입에 나서고 있어서 수익성 부문에서 의구심이 든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장기적으로 설비 투자가 지속되지 않아도 2023년 이후 에틸렌 가격의 불안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일가스를 기반으로 한 미국에서 2023년까지 에틸렌 생산능력이 연간 1300만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역시 2023년까지 에틸렌 생산이 800만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생산 가동 시점도 2023년 이후다.

정유업계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던 정제마진이 다시 떨어지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지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지난 2분기 3.5달러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후 7월 둘째주 배럴당 7.5달러로 회복했지만, 7월 마지막주 6.6달러로 다시 내려왔다. 지난 6일 기준으로는 배럴당 5.8달러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상 정유사는 외화부채를 30억 달러 이상씩 가지고 있다. 원유를 중동 등에서 수입해올 때 거래를 달러로 하기 때문에 달러를 단기차입 등의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외화상환 부담도 커진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삼성 갤럭시 10 싸고... 이통사 '5G 2라운드'

SKT 출고가의 50% 면제 서비스
KT '5G프리미엄 가족결합' 선택
LGU+ 2년간 납부액 2만5천원 ↓



SK텔레콤이 단독 출시하는 '갤럭시S10' 모델 블루 색상(위), 모델들이 갤럭시 노트10 5G 사전예약을 홍보하고 있다. /SKT·KT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9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대리점과 온라인몰을 통해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노트10(이하 노트10)', '노트10플러스(+)'에 대한예약판매를 진행한다. 새로운 5세대(5G) 스마트폰 등장으로 치열한 '5G 2라운드' 경쟁이 또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노트10의 출고가는 256기가바이트(GB) 단일모델 기준 124만8500원(이하 부가세 포함)이다. 노트10플러스는 256GB 기준 139만7000원, 512GB 기준 149만6000원이다.

◆컬러 마케팅부터 카드제휴·결합 등 할인 혜택까지...막 오른 '5G 2라운드' 경쟁

이번 '5G 2라운드'는 각 이동통신사별로 단독 컬러 제품을 확보해 차별화를 노린다는 점이 특징이다. SK텔레콤은 파란색 모델, KT는 빨간색 모델을 내놓는다. 다만, LG유플러스는 단독 컬러 제품이 없지만, 현재 제조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보급형 단말 외에 플래그십 모델을 출시하면서 이동통신사별로 색상을 다르게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

모션을 선보인다. 이번 프로모션은 결합 가구 내 5G 슈퍼플랜 요금제가 2회선 이상 포함되는 경우 1번째 회선도 25% 결합할인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선택약정 25% 할인과 함께 할인 받아 월 4만원에 5G 무제한 요금제(슈퍼플랜 베이직, 월 8만원 기준)를 이용할 수 있다.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LG유플러스 이용자는 'U+Family 하나카드'를 통해 자동이체로 통신요금을 납부하면 최종 납부금액에서 최대 월 2만5000원씩 2년간 60만원을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콘텐츠&사은품 경쟁도 치열

콘텐츠와 사은품을 통한 서비스 경쟁도 치열하다. SK텔레콤은 요금제 혜택에 따라 무료 또는 100원의 가격으로 동영상 서비스 '폭'과 음원 서비스 '플로'를 즐길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노트10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착'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KT에서 갤럭시 노트10을 사전 예약하고 8월 26일까지 개봉하면 ▲삼성전자 갤럭시 피트 ▲삼성 무선충전기 듀오+클리어 커버 ▲클럽 게임패드+LED커버 등 사은품 3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KT측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KT 컨설턴트가 찾아가는 '여기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KT-BNK부산銀, ICT 금융서비스 맞손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활성화 MOU

KT가BNK부산은행과 금융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해 손을 잡았다.

KT는 8일 부산 BNK부산은행 본사에서 BNK부산은행과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 서비스 발굴 및 공동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KT와 부산은행은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KT의 ICT 역량과 부산은행의 금융 노하우를 결합한 디지털 금융 혁신 서비스 모델을 공동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KT의 클라우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 분야 핵심 기술을 부산은행의 고객 맞춤형 생활 금융 플랫폼에 접목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지속적인



KT 미래플랫폼사업부부장 이동면(오른쪽)과 BNK부산은행 본대인 행장이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금융ICT 융합 서비스 공동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활성화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양사는 마케팅 제휴를 통해 9일부터 부산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상품인 '소호프리미엄대출'에 금리 추가 인하 프로모션을 연다. /김나인 기자

LGU+ "강변북로 달리며 5G서비스 누리요"

도심고속화도로에서 고속이동 시에도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서울 도심의 고속화도로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서 5G 연속 커버리지를 구현, 고속 이동 시(60~80km/h) 다운로드 평균 530메가비피에스(Mbps), 최고 1050Mbps 속도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LG전자 V50 씽큐 5G 스마트폰으로 진행됐다. 이번 검증을 통해 고속화 도로에서도 LG유플러스 5G 특화 서비스인 U+프로야구,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각종 고화질 서비스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고속이동 시에는 밀리초(ms) 단위로 빠르게 변화하는 무선 환경 영향으로 기지국 송출 신호가 이동하는 사용자 위치에 정확히 전달되기 어렵다.

LG유플러스는 대용량 다중입출력



LG유플러스 직원이 강변북로에서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5G 속도품질을 테스트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장치(Massive MIMO)를 이용한 빔포밍 기술을 통해 빠르게 이동하는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G 커버리지 및 네트워크 파라미터 최적화 작업을 진행, 단말 수신 성능을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인접 셀간 핸드오버 성공률 100% 및 다운로드 평균 530Mbps 속도를 확인했다.

/김나인 기자

한화큐셀 2년 연속 '글로벌 베스트컴퍼니'

한화큐셀은 지난 7일 프레젠테이션 국외 현지기념관에서 진행된 '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에서 2년 연속 '글로벌 베스트 컴퍼니'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을 선정해 수

여하는 상이다. 한화큐셀은 철저한 품질관리를 소비자에게 높은 신뢰를 제공하고 수출에서도 우수한 역할을 발휘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화큐셀은 성능 및 안정성을 높이는 태양광 '윈탑'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이끌고 있다.

/정연우 기자



한화큐셀은 '글로벌 베스트 컴퍼니' 부문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 /한화큐셀